

홈 > 뉴스 > 기술사 > 소식

SH공사, 지하철도현장 소방방재훈련 실시

2015년 11월 03일 09:35:29

조재학 기자 ✉ webmaster@penews.kr

SH공사(사장 변창흠)는 지난 10월 30일(금) 오후 2시부터 진흥기업(대표이사 차천수)이 시공하고 있는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 현장에서 소방방재훈련을 실시했다.



▲ 한국기술사회 '국민안전지킴이 기술사회 봉사단' 손우화 단장이 훈련에 대한 총평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SH공사에서 정현규 본부장, 김소경 처장, 전재성 팀장, 차완수 차장, 이춘기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안전지킴이 기술사회 봉사단" 손우화 단장(부회장, 토목시공기술사), 김일(토질 및기초기술사), 이해일(건설안전기술사) 등 기술사들과, 최동호 소장, 배병환 감리단장 등 현장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지하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비상연락체계를 동원해 초기화재 진압과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인 보고체계를 숙지하여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소방서, 경찰서, 지정병원 등과 함께 실제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시 적극적인 방재와 인명구조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 현장 소방방재훈련 중 인명구조 훈련 실시 장면

이날 훈련을 참관한 손우화 부회장은 “예고 없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실전 같은 연습의 중요성과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지킴이 기술사회 봉사단은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 현장 지하철 터널구간과 오픈구간의 안전점검도 동시에 실시했다.

서울 = PENEWS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http://www.pe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찜하기